

현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

학과 : 철도경영학과 학번 : 202310287 이름 : 김성호

(1) 서론

촉법소년이란 청소년의 범죄 처벌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촉법"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소년"은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는 성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심신적, 육체적,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와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소년보호처분이 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있다.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또 똑같은 범죄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부터 18세까지가 아니라 만 13세까지로 하향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본론

2-1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려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당시 교통 사망 사고를 냈던 8명 가운데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 됐다. 그리고 특히 올해 4월 한 소년이 4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만 14세가 된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앞서 언급된 2년 전 교통사고 가해 이후 공동폭행에 연루된 용의자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예외적용 없이 성인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걸 악용하는 촉법소년은 성인처럼 처벌하거나 성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2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50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만 13세 소년이 2만2202명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그리고 2022년 지난해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 재범률은 12%(법원통계월보)다. 성인 재범률(4.5%)에 3배에 육박한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촉법소년은 2015년 6,551명에서 2019년 8,615명으로 31.5% 증가했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399명에서 2,148명으로 53.5% 급증했다.

(3) 반론/재반론

3-1 반론

형벌만능주의랑 만 14세 연령 인하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019년도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3년 이내 소년원에 다시 돌아오는 소년범의 비율이 20%가 넘는다. 2018년도에 소년원 처분을 받은 1488명의 소년범 가운데 소년원 이력이 없었던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 교화시스템의 수정과 보안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원이 1인당 114명으로 OECD 평균인 1인당 27.3명에 크게 미달한다. 또한 소년원 시설도 17년 기준 140%의 과밀 수용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체계적인 교화시스템에 대한 보완적 노력도 없이 단순히 연령만 낮추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주장은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재반론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4단계의 따르면 만 12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서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가능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만 14세에게 정말로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무려 19년 전인 2002년도 현재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져 있다.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만 14세 미만이라는 책임 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또한 중학교 학제를 고려하여 촉법소년을 만 13세로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찬성 측은 현대사회에서 촉법소년을 만 14세의 책임능력은 당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결론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매년 강도, 살인, 파도림과 같은 행위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강력 범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 연령을 낮춰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 수준이 빨라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에 처음 기준이 정해졌다. 본 기준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지식의 비대칭이 많이 완화되어 청소년들의 신체나 정신적인 발달이 빨라졌다. 보호처분을 많이 받는 상당 부분의 촉법소년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이다.

(5)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소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bbc news 코리아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390543>

오마이 뉴스 “소년범죄 공판 청구 19%증가”

<https://m.news.zum.com/articles/59845172?src=zummobile>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2113

경남도민일보 “경남에서 하루 평균 11명 소년범이 생긴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532>

조선일보 “난 어려서 교도소 안 가”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7/02/KNFOEU3LAFHGJHAN4GBGVVQAXU/>

SBS NEWS “초등학생 흉기 살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2113

인사이트 “대한민국 충격에 빠트렸던 초등생의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사건5”

<https://www.insight.co.kr/news/257546>

이지경제 “청소년 10명 중 8명 청소년 범죄 심각 소년법 개정 찬성”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51>